

코로나 감염증이 수습된다면 !! ~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

일본에서는 9월 중순부터 서서히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재상황에서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나긴 터널 속에서, 그나마 수습된 다음의 생활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즐거운 기분에 빠져 봅시다. 오래동안 “아무데도 가지마시오” 라는 말을 듣고 있어서인지, 압도적으로 “여행 가고 싶다” 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곳을 가보고 싶다 !~

*스페인 바스크 지방을 가보고 싶어요. 맛집 동네로 불리는 빌바오 나, 산 세바스찬에 가서 대중식당을 돌아다니며, 각 식당이 자랑하는 빈초 나 타파스 의 맛을 즐기고 싶습니다. (후지타)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있을 때, 맨처음 간 외국이 독일이었습니다. 그 때, 제 아버지의 펜팔 친구였던 독일 여성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 집에 들러 아우트반에서 드라이브도 하고, 포장마차에서 케익을 먹기도 하고, 또 그분의 남편과 함께 일본에 오셨을 때는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 분이 2017년에 돌아가셔서, 독일에 들어서 무덤에 꽃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가능한한 집에서 지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외출을 참고 있어요.

코로나로 2년이나 귀국하지 못했어요. 북경으로 돌아가 엄마, 아들,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고 싶어요. (吳 運震)

*태국에 가서 맛있는 태국 요리를 먹고 싶어요 (타나카)

*베트남과 뉴질랜드에 친구가 있어서, 만나러 가고 싶어요. (하세베)

*2020년 봄, 딸아이의 중학교 졸업에 맞추어 가족이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못갔었어요.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K.히다노)

*고향(중국)에 가고 싶어요. 2년이나 돌아가지 못했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楊 曉蓉)

*영화관이나 라이브 하우스에 가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Y.이가라시)

*노인홈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드리고, 효도하고 싶어요.

(M.아키토모)

*피규어 스케이트 팬이므로, 내년에 개최되는 북경 동계 올림픽을 관전하고 싶은데 무리겠죠...? (K.히다노)

*훗카이도에 살고 계시는 조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요. (H.하세가와)

*좌우지간 마스크를 벗고 걷고 싶어요. 입이 언제나 답답하고 기분이 산뜻하지 않아요. 가을의 청량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 쉬고, 자연 속을 걷고, 큰 소리로 웃고 싶어요. 립스틱을 바른 저를 보면, 이사람 누구지, 할지도...? (K.타케우치)

*우리가족 세명은 극단 사계의 뮤지컬을 좋아하여, 아들과 함께 라이온킹 무대공연을 보려고 예약했었는데, 코로나로 캔슬되고 말았어요. 언젠가 안심하며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내 몽골'의 대초원에서 말타기도 하고 유목민들의 생활을 체험해보기로 약속했었어요. 이제 곧 아들이 중학생이 됩니다. 본인도 기대하고 있으니, 코로나가 진정되면 모국으로 돌아가 아들과 함께 대초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H.카노)

*친구들과 모여, 먹고 마시면서 3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수다떨고 싶어요. (J.타나카, M.아키토, Y.이가라시)

*아내와 홋카이도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두손을 모으고, 시설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뵙고 효도도 하고 싶어요. 다음날은 여동생에게 자전거를 빌려, 이시카리가와(石狩川) 호반에서 사이클링도 하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매년 해오던 이런 일들이 그리웁니다. (T.카토)

*코로나 전에는, 특별한 예정도 없이 서점에 들러, 문고 코너나 평소에는 안보던 책선반을 기웃거리거나 하며 두세시간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오래 있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살 책을 정하고, 도착하면 바로 계산하러 가다보니, 서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쓸쓸합니다. 예전처럼 목적없이 서점에서 느긋하게 시간 보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Y.사다)

*OPINION 의견

인생은 여행

스리칸라야 온초이사클 (태국)

지난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보도를 들었을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나 오래 계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 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 스트레스도 쌓여가고, 지금은 그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여행은 객관적 시야를 넓혀줍니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을 하면, 지리적, 문화적인 차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비치코밍(해안 청소), 등산, 강에서 보트 타기, 폭포수 맞기, 호수에서 수영, 설산에서 스노보트나 바다에서의 스노클링(대롱 잠수) 등을 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마다 그 세계가 보여주는 신비로움과 훌륭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리적 차이는 삶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먹는 음식, 스포츠, 언어, 입는 의복, 문제 해결방법 등등,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면서, 저는 또다른 연민을 느끼고, 성급한 판단을 삼가하게 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 여행은 제자신의 발견도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이고 싶은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객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겨우 2년 반의 승무원생활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만두고 강사가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여행할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올 찬스를 얻어,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곳을 구경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특색을 가진 나라입니다. 전율을 느낄만큼 추운 홋카이도, 불타는 태양의 오키나와, 큐슈에는 아름다운 해안이나 숨이 막힐듯한 활화산,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인상 깊은 장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랄 뿐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적어도 집근처를 산책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언제나 산책하며 쉴 수 있는 훌륭한 공원들, 많은 고양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묘지, 일출이나 일몰이 아름다운 못 등, 나를 송고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많은 장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곧 전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

누에 니 소우 (맘마)

코로나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세계가 팬데믹이 되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택 텔레워크, 온라인 수업, 사회적 거리 두기, 간단히 해외에 사는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것 등,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책임지고 아이들을 상대해야 할지 매일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막연한 불안, 슬픔, 걱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늘, 부정적인 감정 속에 놓여 있으면 그것이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큰 일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저는 몇년 전에 읽은 애독서 중 하나인 '존 그레이' 작가의 「How to Get What You Want and Want What You Have(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의 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personal success) 실천적 정신적 지침을 알려줍니다.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치유기술이 균형을 잡으면서, 그 과정에서 다섯 단계를 통하여,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신을 만드는 참신한 방법이 있다고 존그레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들이 직면해있는 생활 변화에 있어서 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점입니다. 이 책이 제게 가르쳐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것인지, 부정적인 경험에서 어떻게 지식을 얻을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자기자신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입니다.

"명상의 가치"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좋은 조언입니다. 명상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명상은 모든 영적인 관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휴식을 체험시켜 줍니다. 하루에 두 번 15 분씩 명상을 하면, 신체 리듬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서서히 편안함, 자신감, 기쁨,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명상은 또한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연계로 되돌리고,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시 당신이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 숲이나 정원을 산책하거나, 태양을 받으며 누워 있거나 해변에 앉아있거나 하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의 치유법, 부정적 감정의 이해, 필요한 것에 대한 자각, 개인적 성공을 얻기 위한 행동을 일으키는 일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손닿는 곳에 두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INTRODUCTION OF TIC SUPPORTING MEMBER

TIC 찬조회원 소개

하와이안 슝 스위트 알로하

알로하의 마음으로

카란짓트 발디팩

당사는 타마시에서 인터넷 판매를 위주로, 하와이안 상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하와이 홀라댄서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업 당시에는 홀라댄스 연습용 스커트를 취급하는 정도의 작은 가게였지만, 조금씩 홀라 상품이나 드레스 등도 취급하게 되어, 업무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취급 내용이 홀라에 특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 해에 몇번이나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의 좋은 것들을 홀라댄서 분들께 값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문화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오면서 하와이 문화가 왜 일본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알로하 정신에 있다는 것을. 하와이에 도착하면 공항 직원들이 "알로하" 라고 인사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친근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와이 문화가 가진 상냥함과 힐링정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이의 매력을 들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푸른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비운 뒤의 무지개, 자연이 풍부한 섬들, 반짝이는 밤하늘, 그리고 홀라댄스. 홀라는 하와이의 자연과 마음을 표현하는 춤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녀들의 손끝에는 알로하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홀라를 보는 우리들은 알로하의 마음을 받아,

하와이에 매료됩니다. 알로하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도 존재하는 다정함을 불러일으키지는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속의 지금, 간단히 하와이에 갈 수는 없지만, 하와이의 음악을 들으면서, 언젠가 또 갈 수 있을 하와이를 꿈꾸어 봅니다. 업무때문에 가는 하와이이지만, 항상 새로운 '발견' 이 있습니다. 자연동물과의 만남, 새로운 레스토랑, 그리고 마음씨 좋은 하와이 사람들. 많은 하와이안 뮤지션들과의 만남 또한 저의 일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하와이 음악과 일본의 홀라댄서분들을 이어주는 것도, 제 일입니다. 힐링 음악과 뮤지션들을 많이 소개하고, 앞으로는 무대에 서는 홀라댄서 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알로하의 마음으로.

*일본인의 시선

많은 일본인들이 관광, 출장, 해외부임 등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되는 일본 습관과의 차이, 놀라움 경이로움. 이번 호부터는 일본인의 차례입니다.

평화 염원

시마다 하루오 (교류사업부)

제가 종전을 맞이한 것은 초등학교(정식으로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치(高知)' 에서 전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전쟁이 세계(특히 아시아) 분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나중에 배웠습니다. 이 일을 잊어서는 진정한 국제교류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보통 "죄송합니다(申し訳ない)"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참회와 사죄의 의미가 꽤 많이 들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면, 매우 가벼운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초 기대했던 전국 각지에서의 시민들간의 국제교류는 거의 없었으나, 할 수 있는 한의 일본식 "대접" 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타마시에서도 호스트타운으로서 아일랜드의 대사관 분들을 모시고 국제이해강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수들도 타마시에 와주셨습니다. 또, 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해, 얼마나 각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함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고대에 있어서 전쟁을 중지하고라도 개최될 정도의 평화의 제전이니,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분쟁을 그만두고, 적극적인 평화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는 이제 "늦출 수 없는" 세계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각국은 군사비에 돈을 쓰는 경쟁이 아니라, 지구 시민으로서, 가난한 국가를 많이 돕는 경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다정한 "배려심" 이나 "아깝다" 정신이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 가능한 발전목표)가 세계의 상식이므로, 일본인다운 국제교류나 국제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일본에도 외국 국적의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TIC 의 활동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애쓰려고 합니다.

클럽 TIC 의 동향

*3/27 국제 이해 강좌 "아이슬란드"

*3/28 봄의 산책

*사진 전시 (비타 7층 통로) "올림픽 메달 획득국"

*8/3~27 외국어 세미나 하기 강좌 '중국어 클래스' '스페인어 클래스'

편집후기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도 무사히 끝나, 개최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선수들의 분투하는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7, 8 월에도 급증하던 감염자 수가 백신 접종으로 9 월은 감소경향에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요. 가을 기나 긴 밤, 즐거운 꿈을 꾸어봅시다.

타마시 국제교류센터 (TIC)

우편번호 206-0011 타마시 세키도 4-72 비타 커뮤네 7층 전화:042-355-2118 팩스:042-355-2104

발행: 홍보부 대표: 모가미 츠토무 편집: 다케우치 카요코

영어번역: 쿠마가이 히로시, 다케우치 카요코, 카쿠다 가나에, 한국어 번역: 이화순 2021년 11월 10일 발행

*당 회보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또, 본 회보는 별도로 한국어판과 중국어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표지: 밴쿠버 개스타운 그림: 다케우치 Serika)